

禮와 禮敎의 本質

張 基 槿*

머 리 말

在來로 東洋의 禮敎나 倫理道德이 낡은 것이라 하여 거의 無批判的으로 우리 周圍에서 버림을 받아 왔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그릇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스스로의 빛나는 傳統의 本質과 그 精神的 價値를 몰랐기 때문에 비저진 盲目的인 잘못이었다. 게다가 解放後 지나치게 西洋文化 一邊倒에 쏠림으로 스스로의 文化的 價値를 되찾을 여유마저 없었던 것이다. 勿論 우리는 西洋의 文化도 마냥 吸收하고 攝取하여 發展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東洋의 文化도 잊어서는 않된다. 특히 精神文化의 빛나는 遺産을 一顧의 價値도 없는 듯이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리석다 하겠다. 이 小論은 東洋의 精神的 빛이라고 할 禮의 本義와 禮敎의 本質을 論한 것으로 亞細亞學報 第六輯에 發表한 「現實과 傳統」과 中國學報 第十輯에 실린 「禮의 精神과 活用」과 같이 參照하기를 바란다.

1. 禮의 起源과 原理

禮는 본래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를 실천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中國文學, 文博)

다」⁽¹⁾는 뜻의 글자다. 禮는 會意形聲字다. 「示」와 「豊」의 會意字이다. 音은 「豊=豊<례>」를 딸았다. 「示」는 「二」와 「川」의 合字로 「二」는 上의 古字이며 「川」은 日·月·星 셋이란 뜻이다. 따라서 「示」는 「上天이 日·月·星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天文現象을 내려 보임으로써 사람에게 吉凶을 啓示한다」⁽²⁾는 뜻이다. 「豊」는 「古代의 禮器」⁽³⁾였다. 梁寒操는 「中國文化的 特點」에서 古文禮(=𠄎)를 대략 다음 같이 풀었다. 「禮字의 左旁 示는 上天이 象을 내려 啓示하는 뜻이고, 右旁(匚)은 사람이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즉 禮字의 원 뜻은 上天이 내린 啓示를 사람이 땅에 무릎 꿇고 敬虔하게 받는 품이다」⁽⁴⁾

원래 中國의 古代人은 天을 萬物의 創造者이자 宇宙의 主宰者로서 그의 位置를 絶對로 보았다. 同時에 天을 그가 創造主宰한 宇宙로 하여금 發展進化시키겠다는 目的意志의 所有者로 보고, 이에 사람들이 따르면 吉賞을 받고, 이를 어기면 凶罰을 받는 거라 믿었다. 이는 다른 原始人들의 경우와 같다. 즉 그들은 애당초 自然의 威脅이나 恐怖에 놀려 宗教的 信仰을 갖게 되었으며, 중국적으로는 그 主宰者로서 天을 絶對的 實在로 보게 된 것이다. 古代中國人들도 마찬가지였다. 黃河流域에서 農耕으로 生活을 유지하던 그들은 天災地變이나 日月星辰의 變化에 놀랐고, 이들 天事와 人事의 關係가 密接함에 눈을 떠 모든 自然 속에 神을 느끼었으며 마침내는 이들 自然의 主宰者, 絶對者인 天을 認識하고 天命思想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禮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天

- (1) 說文解字詁林에는 禮를 다음 같이 풀었다. 「禮,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从示从豊. 豊亦聲(靈啓切). 𠄎, 古文禮.」
- (2) 說文解字詁林에는 示를 다음 같이 풀었다. 「示, 天垂象, 見吉凶, 所以示人也. 从二(二, 古文上字)三, 垂日月星也. 觀乎天文以察時變, 示神事也. 凡示之屬皆从示. 𠄎, 古文示. (所謂 古文諸上字皆从一也. <段注>)」
- (3) 說文解字詁林에는 豊를 다음 같이 풀었다. 「行禮之器也. 从豆象形.」
- (4) 「禮字左旁爲示字, 天垂象曰示. 右旁爲匚, 乃人跪地狀. 天示象於人, 人乃跪地以示虔敬, 這是禮字的最初意義. 若人不能禮, 則與草木禽獸無異了, 故禮爲做人的起碼條件.」(中國文化之特點: 人生 152期)

命을 받아 이를 지키고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단 中國 古代人은 이를 끝끝내 宗教로 發展시키지 않고 現世的으로 解釋했다. 이는 中國思想의 人文精神的 特性이기도 하다. 高田眞治는 中國古代에 發達한 天命思想을 政治的 天命思想과 道德的 天命思想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考察했다.

政治的 天命思想：天 즉 上帝는 宇宙의 超越的 主宰神으로 宇宙萬物을 創成하고 이들을 支配하고 監督하고 牧養한다. 이러한 思想은 詩·書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天은 無形이며 認見할 수 없다. 그러나 天은 보고 듣고 또 命令도 내리고 指揮도 한다. 단 天은 사람같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指揮하지는 않는다. 天意는 오로지 民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公正한 社會民衆의 소리가 바로 天意를 表現하게 되는 것이다. 天은 萬物의 아버지이다. 따라서 萬物 중의 하나인 사람들은 天의 子息들이라, 결국 人心은 아버지인 天心을 代表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天은 언제나 民衆이 有德者라고 하는 자에게 命을 내리어 自己를 대신하여 人民을 다스리게 한다. 이것이 바로 天子다. 天子는 天의 子로서 天意를 받들어 民을 撫育해야 한다. 天은 노상 王者 즉 天子가 天意를 잘 받들어 民을 撫育하나 못하나를 監視하고 있다. 王者가 人民을 撫育하고 善政을 베풀고 있으면, 天은 그를 賞준다. 國家가 安穩하고, 五穀이 豐穰하고 모든 祥瑞가 나타나게 된다. 그와는 반대로 王者가 暴虐하고 惡政을 펴 民을 괴롭히면 이는 民을 愛育하자는 天意를 어긴 것이라 天은 怒하여 그 王者를 罰준다. 災害가 頻繁하고 國家에 騷亂이 일게 됨이니, 이는 바로 天이 王者에게 警告하여 反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도 王者가 反省하지 못하면, 마침내 天命은 끝나고, 그는 天子의 資格을 잃고 天罰을 받게 된다. 國家가 滅亡하고 革命이 이룬다⁽⁵⁾.

道德的 天命思想：「사람이 行하는 道德은 사람의 約束으로 成立되는 것이 아니고, 宇宙의 主宰者인 天이 授與한 것이다」 「天은 宇宙의 主宰

(5) 高田眞治 著, 「支那思想의 研究」 第二章

神이며, 最高絶對의 實在다. 따라서 天의 本質은 完全하고 至善이다」 「사람의 道德도 이러한 天의 本質中에서 展開된 것이다 道德은 必然的으로 그 價値에 있어 絶對이며 그 內容에 있어 純善하다」 「天에서 나온 사람의 本質中에는 天의 本質을 展開시킬 수 있는 可能性 또는 素質이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즉 性이자 性命이다. 사람은 天의 所生이니까, 사람의 性은 원래가 天이 賦與한 것이다. 이를 性命이라 한다」 「사람의 道德性은 天에서 稟受한 것이며 이 道德性에 근거하여 人間常行의 道德 禮儀가 나온다」⁽⁶⁾

以上과 같은 天命思想을 이해할 때 中國의 古代人들의 敬天思想 및 天人合一 사상과 아울러 禮를 重視한 기본관념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禮를 絶對最高神이 天地萬物을 創造하고, 이들을 主宰하고 아울러 進化發展시키는 攝理로 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禮記 禮運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禮는 반드시 大一에 뿌리를 둔 것이다. 나누어 짐으로써 天地가 되고, 轉해야 陽이 되고, 變해야 四時가 되고, 列해야 鬼神이 되었다. 그 내림이 바로 命이며 그는 天에 法한다.」⁽⁷⁾

여기서 말한 「大一」은 바로 天地宇宙의 創造者, 主宰神인 「天」이다. 孔穎達은 疏에서 「大一은 天地가 나누어 지지 않고 混沌한 체로 있는 元氣이다」 「그 元氣는 極大이며 未分이므로 大一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아울러 「禮의 理가 大一과 같으므로 禮를 制하는 사람은 至善之大理를 가지고 본받을 기본으로 삼는다」⁽⁸⁾라고도 했다.

이렇듯 「大一」의 至善之大理를 그대로 본 따서 모든 人事運行의 大攝

(6) 同上 第三章

(7) 「夫禮必本於大一，分而爲天地，轉而爲陰陽，變而爲四時，列而爲鬼神，其降曰命，其官於天也。」(禮記 禮運第九) 「官猶法也。此聖人所以法於天也。」(鄭注)

(8) 「必本於大一者，謂天地未分混沌之元氣也。極大曰天未分，曰一。其氣既極大而未分，故曰大一也。」 「禮理既與大一而齊，故制禮者用至善之大理以爲教本。」(禮記 禮運第九, 「是故夫禮必本於大一」의 疏)

理로 삼고 있음을 더욱 잘 알리는 말은 禮記正義의 말이다. 「禮는 天地를 法經하고 人倫을 統理하는 것으로 始本은 天地가 나누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禮는 理다. 그를 잘 써 다스리면 天地와 더불어 興한다.」⁽⁹⁾ 또한 禮記 禮運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禮는 반드시 뿌리를 하늘에 두고, 法度를 땅에 두고, 列位를 鬼神에 두고, 用達을 喪祭, 射御, 冠昏, 朝聘에서 이룬다. 따라서 聖人은 禮로 포시함으로써 천하와 국가를 얻어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¹⁰⁾ 또한 禮記 禮器에는 「禮는 天時에 합하고, 地財를 設하고, 鬼神에 順하고, 人心을 합하며, 萬物을 攝理하는 것이다」⁽¹¹⁾ 라고 했다.

大略 以上으로써 우리는 禮가 天地萬物의 創造主宰者이자 進化發展의 統攝者로서의 絶對實在인 「天의 攝理」에서 나온 것이며, 그 「天의 攝理」는 바로 國家政事나 人間行爲의 規範原理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同時에 天의 攝理와 人間의 攝理를 一統한 禮가 바로 敬天思想이자 天人合一의 바탕이며, 禮治나 禮敎 또는 祭政一致의 根源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治國은 바로 祭禮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郊社의 뜻이나, 嘗禘의 禮를 밝히면 治國하기가 손바닥 가리키듯 쉬웁다」⁽¹²⁾ 郊社는 外祭이고, 嘗禘는 內祭다.

禮의 起源을 上古代의 祭祀에서 찾고 天의 攝理를 받들어 人事의 規範原理로 삼아가지고 順天함으로써 天福吉賞을 받겠다던 생각은 점차로 人文이 發達함에 따라 보다 社會的이고 功利的이고 政治的으로 되었다.

(9) 「夫禮者經天地，理人倫，本其所起，在天地未分之前。故禮運云：夫禮必本於大一，是天地未分之前，已有禮也。禮者理也，其用以治，則與天地俱興。」(禮記正義)

(10) 「是故夫禮必本於天，祿於地，列於鬼神，達於喪祭·射御·冠昏·朝聘，故聖人以禮示之，故天下國家可得而正也。」(禮記，禮運第九)

(11) 「禮也者，合於天時，設於地財，順於鬼神，合於人心，理萬物者也。」(禮記 禮器第十)

(12) 「明乎郊社之義，嘗禘之禮，治國其如指諸掌而已乎。」(禮記 仲尼燕居 第二十八)

禮記 禮運篇에서 孔子는 言偃와의 問答에서 「大道之行也，天下爲公」하던 大同理想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今大道既隱」하게 되자，禮로서 小康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孔子는 「禮는 先王들이 天之道를 받고 人之情을 治하던 것이다. 따라서 禮를 잃으면 죽고，禮를 얻으면 산다」⁽¹³⁾라 하여 禮와 人間生活을 直結시켰다. 또한 같은 禮運篇에는 「聖人是 禮의 重大함을 안다. 나라가 파괴되거나 집을 잃거나 사람이 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禮가 먼저 없게 마련이다」⁽¹⁴⁾라고도 했다.

이렇듯 禮를 興亡治亂에 直結시키는 그 淵源도 앞서 말한 대로 人間은 天命을 따라야 한다는 敬天思想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편 禮의 起源을 人間의 欲心を 調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본다. 荀子는 다음 같이 말했다. 「禮의 起源은 무엇이나? 사람은 生來로 欲求하는 바 있으며，欲求하는 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欲求를 버리지 못한다. 그리고 度量分界 없이 無限量 欲求를 내면 서로 爭奪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爭奪하면 亂해지고 亂하면 窮하게 된다. 先王은 그렇듯 亂해지는 것을 꺼리어 禮義를 制하여 秩序分界를 세우고 또한 人間의 欲心を 적절히 살리면서 아울러 人間의 欲求하는 바를 적절히 充足시켜 주었다. 이렇게 하여 欲求가 物質의 不足으로 맥히거나，또는 物質이 지나친 欲求에 의해 격이거나 하는 일 없이 兩者가 서로 적절이 조화되고 활용되게 했다. 이가 바로 禮의 起源이다.」⁽¹⁵⁾ 荀子의 말은 禮의 起源이라기 보다는 先王이 制禮한 理由이며 禮의 効用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人間의 欲求，欲心，欲望을 調節하는 禮의 始發點을

(13) 「孔子：曰夫禮先王以承天之道，以治人之情。故失之者死，得之者生。」(禮記 禮運 第九)

(14) 「故唯聖人爲知禮之不可以已也。故壞國喪家亡人，必先去其禮。」

(15) 「禮起於何也。曰：人生而有欲，欲而不得，則不能無求。求而無度量分界，則不能不爭。爭則亂，亂則窮。先王惡其亂也。故制禮義，以分之，以養人之欲，給人之求，使欲必不窮乎物，物必不屈於欲。兩者相待而長。是禮之所起也。」(荀子 禮運篇)

찾을 수 있다. 또한 荀子는 「禮之三本」이라 하여 禮는 生과 治의 本인 天地와 先祖와 君師를 높이고 섬기는 것이라 했다. 그는 또 天地는 生의 本이며, 先祖는 類의 本이며, 君師는 治의 本이다. 天地가 없었으면 어떻게 나타났을 것이며, 先祖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을 것이며, 君師가 없으면 어떻게 다스려질 것인가? 또한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禮는 위로는 天을 섬기고 아래로는 地를 섬기고, 先祖를 尊敬하고 君師를 높이는 것이니, 이를 禮의 三本이라 한다」⁽¹⁶⁾라고 했다.

이상에서 본 바 禮의 本質的인 起源은 祭祀에 있고, 禮의 効用的인 起源은 人間의 欲求를 조절하자는 政治에 있다. 그러나 兩者가 다 天과 人, 天命과 性命, 天道와 人道の 一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禮의 精神이 끝끝내 宗教가 되지 않고 禮敎로 굳게 된 것은 禮에 있어 그 社會的 關係로서 人間과 人間의 行動規範을 重視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 점은 똑같이 絶對的 實在로서 「天」「하느님」을 믿으면서 基督教 같이 純粹하게 宗教化되지 않고 오히려 「仁者人也」라 하고 나선 儒敎의 人文精神의 一面이기도 하다. 同時에 이러한 點에서 禮가 그대로 倫理道德의 核心으로 모든 人間社會生活의 規範으로 뻗게 된 根源도 찾을 수 있다.

2. 禮의 本義

禮의 起源에서 본 바와 같이 禮의 원뜻은 「承天事神」하자던 것이었으며, 그것이 점차로 「順天事人」하는 方向으로 나가 드디어는 人間社會의 規範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禮의 뜻풀이도 여러가지로 나누어지

(16) 「天地者生之本也. 先祖者類之本也. 君師者治之本也. 無天地惡生? 無先祖惡出? 無君師惡治? 三者偏亡, 焉能安人? 故禮上事天, 下事地, 尊先祖而隆君師, 是禮之三本也.」(荀子 禮論篇)

게 되었다. 그 대략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禮는 理다 : 禮記 仲尼燕居에는 「禮는 理다. ……君子는 理 없이는 行動하지 않는다」⁽¹⁷⁾라고 있다. 또한 禮記正義에서도 「禮는 理다. 그를 써서 다스리면 天地와 더불어 같이 興한다」⁽¹⁸⁾라 했고 다시 「禮理는 大一에서 이터났으므로 그 뜻은 通한다」⁽¹⁹⁾라고 하였다. 즉 禮는 天理, 天의 道理이며, 이 道理, 眞理는 大一인 絶對에서 나온 絶對眞理인지라 天地萬物에 貫通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宋代의 儒學者들이 居敬窮理를 重視한 것은 바로 이 絶對眞理인 天理를 一心으로 터득하자는 것이었다. 但 宋代 儒學者들은 지나치게 形而上學에 기울어 禮의 實踐에 있어 虛禮虛儀化하게 되었음은 皮錫瑞가 말한 대로다. 「漢儒는 禮를 주장했고, 宋儒는 理를 주장했다. ……禮와 理는 本來 一貫되는 것이지만 漢儒의 禮는 반드시 事實에서 實證되고자 했다. 즉 禮에 맞으면 是고 안 맞으면 非로서 是非가 確定되어 있음으로써 누구나가 다 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宋儒의 理는 흔히 空虛에 흘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으로 是非가 혼란하고 確定되지 못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禮란 人倫의 極致로서 반드시 一定한 法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後儒들은 理를 空言하고, 禮를 實踐하지 못했고 禮라면 敬이라 하고, 喪하면 哀라 할 따름이요, 國家大事를 決議할 마당에서도 흐릿하여 根本을 알아내지 못한다」⁽²⁰⁾ 皮錫瑞의 批評은 宋儒가 지나치게 天理를 精神的인 敬으로만 받아 드리고, 天地의 攝理秩序에 맞추어 國事나

(17) 「子曰：禮也者理也。樂也者節也。君子無理不動，無節不作。」(禮記，仲尼燕居 第二十八)

(18) 註9 參照

(19) 「其禮理起於大一，其義通也。」(禮記正義)

(20) 「漢儒多言禮，宋儒多言理。……禮與理本一貫，然禮必證諸實，合於禮者是，不合於禮者非。是非有定，人人所共信者也。理常憑於虛，彼亦一是非，此亦一是非，是非無定，不能人人共信者也。可見禮爲人倫之至，而以推致言禮，爲一定之法。後儒空言理而不講禮，謂禮吾知敬而已，喪吾知哀而已，一遇國家有大疑議，則幽冥而莫知其原。」(經學通論 卷三)

人事를 잘 처리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禮가 바로 天理, 眞理라 하더라도 亦是 禮는 外形的인 天의 攝理와 秩序를 表現한 것 (文)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 點에 대하여 王陽明은 다음과 같이 밝혀 말했다. 「禮字는 바로 理字다. 그러나 理가 表現되어 나타난 것을 文이라 하겠고, 文이 隱微하여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理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것이다」⁽²¹⁾ 즉 禮는 文이다. 宇宙萬物이 天의 攝理에 따라 秩序整然하고 아름답게 運行進化하는 품을 文이라 한다. 尙書正義에도 天地를 經緯하는 것을 文이라 풀었다. 따라서 우리 人間들도 國家나 社會生活을 함에 있어 天의 攝理를 따라 秩序整然하게 하나의 天道를 一統의 眞理로 삼고 아름답게 協同하여 進化發展할 때 비로소 禮를 받아 들였으며, 또한 禮를 지킨다고 하겠다. 이것이 바로 順承天하고 治人情하는 것이요, 또한 天理, 一統된 絶對眞理를 모든 사람이 따른 품이라 하겠다. 따라서 禮를 履나, 理라고 풀 수 있으며 또한 中國의 禮治文治의 一統된 原理가 있는 연유이다.

(b) 禮는 節度다 : 앞에서 荀子의 說을 引用했듯이⁽²²⁾ 古代人들은 人間의 感情과 欲求를 적당히 節度하고 동시에 적절히 充足시키고 아울러 아름답게 表現發揮하고자 禮로써 여러 規範을 制度한 것이었다. 禮記 坊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禮는 人間의 情性を 좃되 그를 節度 있고 文雅하게 만들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放縱하게 됨을 막자는 것이다」⁽²³⁾ 원래 이말은 孔子의 말로서 人間들로 하여금 富貴를 누리 驕慢에 흐르지 않게 하고, 貧賤이라고 지나치게 窮塞하지 않게 함으로써 社會의 紊亂을 막자는 뜻이다. 또한 禮運篇에는 다음과 같이 人間의 本能的인 欲求나 嫌惡 같은 心理作用을 궁극적으로 節度있게 조절하는 것이 禮라고

(21) 「禮字即是理字，理之發現可見者謂之文，文之隱微不可見者謂之理，只是一物。」(傳習錄)

(22) 註15 參照.

(23) 「禮者，因人之情而爲之節文，以爲民坊者也。」(禮記 坊記 第三十)

했다. 「마시고 먹는 것이나, 男女의 性愛는 人間의 本能的인 欲求이며 死亡이나 貧苦를 싫어하는 것도 人間의 先天的인 嫌惡心理다. 따라서 이들 欲求나 嫌惡는 人間心理의 基本이다. 그러나 人間 각자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心理는 쉽사리 測度할 수가 없으며, 또한 좋다 나쁘다하는 感情도 속에 묻은 채 外色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心理나 感情을 종교적으로 조절하려면 禮를 가지고 해야하는 것이다」⁽²⁴⁾ 결국 禮는 人間의 本能的 欲求나 情性を 無限量 내보이고 채우고자 서로 싸우는 것을 未然에 막기 위하여 各自가 節度있게 채우고, 또한 文雅하게 내보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孟子는 그의 四端說에서 「辭讓하는 마음이 禮의 근본이다」라고 했다. 人間은 서로가 欲求를 조절하고, 感情을 醇化하고 文雅하게 表現해야 서로 마찰이나 紛爭이 없이 秩序와 安定된 바탕 위에서 協同調和하여 進化發展할 수 있다. 이는 바로 萬物을 生成하고 다같이 進化發展시키는 天理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禮記 樂記에 잘 나타나 있다. 禮와 樂을 같이 들어서 말했다. 「따라서 先王이 禮樂을 制定한 의도는 口腹耳目의 享樂的 欲求를 끝없이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愛好와 嫌惡하는 感情을 平庸하게 조절하여 人道에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本性은 靜正하다. 이는 天性으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外界物體에 감촉하면 動하니, 이로써 天性 속에 숨어 있는 欲求가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外物이 來到한 것을 알게 되면 즉 愛好나 嫌惡하는 感情이 形成된다. 內面的으로 愛好나 嫌惡하는 感情에 節度가 없고, 外面的으로 物的 欲求에 끌리면 天性으로 타고난 靜正에 돌아가지 못하고 따라서 天理를 받은 人性을 망치게 된다. 무릇 外物이 人間을 끝없이 흔들고 人間의 感情에 節度가 없으면 이는 外物에 의해 人間이 物體化된 것

(24)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死亡貧苦, 人之大惡存焉. 故欲惡者, 心之大端也. 人藏其心, 不可測度也. 美惡皆在其心, 不見其色也. 欲一以窮之, 舍禮何以哉.」(禮記 禮運 第九)

이라 하겠다. 人間이 物體化되면, 天理가 滅하고 人間의 欲求에 끝이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悖逆과 詐欺하는 마음이 생기고, 淫佚과 紛亂스런 일이 생기며, 強者가 弱者를 위협하고, 多數가 小數에 橫暴하고, 知者가 愚者를 속이고 蠻勇한 자가 小心한 자를 괴롭히고 疾病에 걸려도 이들을 收養하지 않게되며, 老幼孤獨한 사람은 살 바를 얻지 못하게 되니, 참으로 大亂의 꼴이라 하겠다. 따라서 先王이 禮樂을 制定한 것은 사람들에게 節度를 주고자 한 것이다」⁽²⁵⁾

이렇듯 禮는 天性을 따라 物質的 欲求를 節度하고 感情을 醇和하며 나아가서는 社會秩序와 同類愛를 發揮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禮는 바로 治道라고도 하겠다. 錢穆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封建은 政治에 偏重했고, 宗法은 倫理에 偏重했고, 井田은 經濟에 偏重했다. 이들 三者가 混然一體가 되어야 비로소 治道라 하겠다. 治道는 바로 人道이며, 이는 또한 天道이다. 그러나 中國의 古代人은 다만 禮라고 했으니, 禮는 本體다」⁽²⁶⁾ 넓은 뜻의 禮는 孔子가 내세운 仁의 뜻과도 통한다. 論語에 잘 나타나 있다. 「孔子가 말하기를 나를 누르고 禮에 돌아가는 것이 仁이다. 克己復禮하는 날에는 天下가 仁에 돌아 갈 것이다. 仁을 이룩하는 것은 나에게 달렸지 남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顏淵이 德目을 묻자, 孔子는 말했다. 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또한 행동하지도 말라」⁽²⁷⁾

(25) 「是故先王之制禮樂也，非以極口腹耳目之欲也，將以教民平好惡，而反人道之正也。人生而靜，天之性也。感於物而動，性之欲也。物至而知，然後好惡形焉。好惡無節於內，知誘於外，不能反躬，天理滅矣。夫物之感人無窮，而人之好惡無節，則是物至而人化物也。人化物也者，滅天理而窮人欲者也。於是悖逆詐僞之心，有淫佚作亂之事。是故強者脅弱，衆者暴寡，知者詐愚，勇者苦怯，疾病不養，老幼孤獨不得其所，此大亂之道也。是故先王之制禮樂，人爲之節。」(禮記 樂記 第十九)

(26) 「封建偏屬於政治，宗法偏屬於倫理，井田偏屬於經濟。此三者融凝一體，然後始成爲治道，治道即人道，亦即天道也。而中國古人則祇稱之曰，禮。禮者體也。」(周公與中國文化：中國學術史論集 一)

(27) 「子曰，古己復禮爲仁。一日古己復禮，天下歸仁焉。爲仁由己，而由人乎

荀子は 특히 禮를 經國世, 治人情의 근본으로 보았다. 性惡說을 주장하는 荀子は 말했다. 「옛 聖王은 사람의 本性이 惡하여 偏險不正하고 悖亂不治하므로 禮義를 이르게 法度を 制하고 사람의 그릇된 情性を 矯飾하여 바로잡고 또한 順化敎導했다」⁽²⁸⁾ 그리고 또한 「禮는 治辨의 極致이며, 強國의 근본이다」⁽²⁹⁾ 「사람은 禮 없이 살 수 없으며, 萬事도 禮 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國家도 禮 없이 安寧할 수 없다」⁽³⁰⁾ 라고 했다.

結局 禮는 國家社會의 秩序安寧을 바로 잡아주고, 人倫紀綱과 萬事亨通의 軌範이라 하겠다. 특히 天理, 天道를 따라 一統된 軌範이라는 點에 그 特唯性이 있다. 따라서 中國古代에서는 禮를 天道, 人道, 人性이라 보고 모든 倫理道德 내지는 治國成事의 原理로 보았던 것이다. 禮는 바로 仁의 理想을 人間社會에 具現하기 위한 原理軌範이다. 禮讓은 治國之大要다. 同時에 禮는 天地之序다. 모든 秩序人倫은 여기서 나온다. 禮記에 다음 같은 말이 있다. 「사람의 生活原理로 禮를 가장 크게 친다. 禮가 아니면 天地의 神을 섬기는 節度を 잡을 수 없고, 禮가 아니면 君臣上下長幼 등의 社會的 地位를 정할 수 없고, 禮가 아니면 男女父子兄弟 등 六親간의 親和나 姻戚交友 간의 節度を 규제할 수 없다」⁽³¹⁾

이렇게 하여 禮는 人間社會生活 全般에 걸친 天形的 規制로도 되었다. 그러나 禮는 결코 制度儀式과 같은 虛飾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禮의 참다운 뜻을 알아야 한다. 禮記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哉? 顏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無聽, 非禮無言, 非禮無動.」(論語)

(28) 「古者聖王以人之性惡, 以爲偏險而不正, 悖亂而不治, 是以爲之起禮義, 制法度, 以矯飾人之情性而正之, 以擾化人之情性而導之也.」(荀子: 性惡篇)

(29) 「禮者, 治辨之極也. 強國之本也.」(荀子: 議兵篇)

(30) 「故人無禮不生, 事無禮不成, 國家無禮不寧.」(荀子: 大略篇)

(31) 「民之所由生, 禮爲大. 非禮無以節事天地之神也. 非禮無以辨君臣上下長幼之位也. 非禮無以別男女父子兄弟之親, 婚姻疎數之交也.」(禮記 哀公問第二十七)

「禮를 높이는 것은 그 뜻이 높기 때문이다. 그 뜻을 잊고, 다만 形式만을 채우는 것은 祝史나 할 것이다. 따라서 形式的인 制度을 채우는 것은 쉬우나 그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 뜻을 알고 성심으로 禮를 지키는 것이 天子가 天下를 다스리는 태도라 하겠다」⁽³²⁾

3. 敎의 本義

說文解字에는 「敎는 위에서 施行하는 것을 밑에서 仿效하는 것이다」⁽³³⁾라 했다. 또한 廣韻에는 敎는 法이라 했다. 이러한 基本的 뜻풀이에서 우리는 古代中國人의 敎育觀念을 엿볼 수 있다. 즉 政敎合一, 君師合一의 觀念이다. 그들에게 있어 政治는 統制나 抑壓이 아니고, 百姓들로 하여금 옳다고 覺醒하여 스스로 仿效하고 좃게 하는 것이다. 學은 바로 覺의 뜻이다. 따라서 「옛날의 王者는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敎學을 무엇보다 앞세웠다」⁽³⁴⁾ 동시에 君主는 統制者나 抑壓者이기 앞서 百姓에게 가르쳐 주는 스승이었던 것이다. 물론 가르쳐주는 內容은 生活技術에서부터 人倫道德에 이르는 禮敎까지 였다. 이點이 바로 東洋政治思想의 빛나는 특성이다. 孔子는 말했다. 「바른 政治나 公平한 刑罰로써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면, 백성들이 잘못하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창피나 法網 같은 것에서는 모면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을 德이나 禮로써 고르게 다스리고 인도해 주면 저마다 가슴 깊이 도리를 각성하고 터득하게 된다」⁽³⁵⁾ 즉 消極的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犯罪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대신 積極的으로 백성들에게 道理를 깨우쳐 스스로 훌

(32) 「禮之所尊，尊其義也。失其義，陳其數，祝史之事也。故其數可陳也。其義難知也。知其義而敬守之，天子之所以治天下也。」(禮記 郊特牲 第十一)

(33) 「敎，上所施，下所效也。从支从孝。」(說文解字詁林：1376)

(34) 「古之王者，建國君民，敎學爲先。」(禮記 學記)

(35) 「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論語 爲政)

통한 覺醒者이자 實踐者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政教合一의 精神이다. 孟子는 다음과 같이 단정해 말했다. 「善政보다 善教로서 백성들을 얻는 것이 더 좋다」⁽³⁶⁾

원래 教育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廣義로는 人間生活을 위한 모든 生活技術上의 教育을 가르치고 狹義로는 文化人으로서의 人倫道德을 위한 精神文化上의 教育을 가르친다. 現代에서 우리는 前者를 物質的 技術을 위한 教育이라 하고 後者를 精神的 倫理의 教育이라 할 수 있다. 물론 古代中國에서도 生活을 위한 物質的 技術教育이 앞섰다. 易經에는 「神農氏가 나무로 따비나 따비날을 만들어 農耕하는 利로움을 天下에 가르쳐 주었다」⁽³⁷⁾라고 했다. 神農氏는 農事짓는 법만이 아니라 交易賣買도 알려 주었다고 한다. 기타 傳說的 存在이기는 하나 有巢氏는 사람에게 집을 짓고 사는 법을 아르게 주었으며, 燧人氏는 火食과 불의 利用을 아르게 주었으며, 庖犧는 結繩으로 八卦와 漁網을 아르게 주었으며, 黃帝는 家畜을 키우고 다루는 법을 아르게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예는 이른바 先覺者들이 여러사람에게 自然을 克服하거나 利用하여 보다 잘 사는 生活技術을 아르게 주었다는 故事다. 이러한 예는 世界人類의 共通된 것이며, 또한 이들 古代部族의 指導者들이 종국적으로는 宇宙萬物의 統攝主宰者로 天을 내걸고, 따라서 古代에 있어서는 宗教와 政治가 混同되었으며, 中國에서도 祭政合一이라 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宗教的인 畏敬心은 漸次로 人間本位, 合理主義로 대체하게 되었다. 孔子는 말했다. 「인간의 바른 道義를 실천하기에 힘쓰고 귀신을 멀리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 치겠다」⁽³⁸⁾ 그리고 孔子는 最高理念으로 仁을 내세웠다. 仁은 人이며, 특히 愛人이다. 즉 人間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仁은 二人, 두 사람의 뜻이다. 人間과 人

(36) 「善政不如善教之得民也。」(孟子 盡心章 上)

(37) 「神農氏作，斲木爲耜，揉木爲耒，耒耜之利，以教天下。」(易繫辭下)

(38) 「子曰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論語 雍也)

間의 對人關係에 각성한다는 것은 바로 人間의 社會的 覺醒이다.

人間도 다른 動物과 마찬가지로 個體로 出生하여 生長하고 드디어는 老衰하여 死亡하고 만다. 그간 人間은 生存하고 生活하며 그러기 위하여 物質的 技術, 生活技術을 活用한다. 그러나 人間은 動物과는 달리 社會的 存在로서 個體와 全體가 항상 相互作用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기 나는 社會的으로 남과의 關係를 잘 유지해야 한다. 나는 社會的으로 上下左右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즉 나를 中心으로 한 上下左右의 人間關係를 가리켜 人倫이라고 한다. 이러한 人倫을 意識하는 것이 바로 動物아닌 人間으로서의 覺醒이다. 孟子는 다음 같이 말했다.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고 편히 살지만, 교육이 없으면 禽獸와 비슷하다. 聖人은 人間들이 그렇게 될까 두려워 契을 司徒로 삼고 사람들에게 人倫을 가르쳐 주었다」⁽³⁹⁾ 衣食住의 技術的 解決이나 向上滿足만으로는 참다운 人間이라 할 수 없다. 人間의 人間다운 가치는 人倫을 알고, 가리키는데 있다. 尙書에 보면 이미 옛부터 人倫에 대하여 五品, 五敎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帝는 契을 불러 말했다. 百姓들이 서로 親愛하고 上下左右가 서로 恭遜友和롭지 못하니 네가 司徒가 되어 五敎를 잘 펴서 가리키라. 그러나 교육은 어디까지나 넓고 너그럽게 해야 한다」⁽⁴⁰⁾ 孔穎達은 正義에서 풀었다. 「이렇듯 五品이 不遜하고 보니, 바로 禮敎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氣風이 淳化되지 못했다」⁽⁴¹⁾ 孟子는 五敎를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라 人倫으로 풀었다. 결국 人倫의 核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禮다. 즉 人間은 上下左右 속에서 萬物을 生成慈育하는 天의 道理를 받들고 따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는 것이다. 이는 仁과 義를 지키는 것

(39) 「飽食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敎以人倫.」(孟子 滕文公 上)

(40) 「帝曰契,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敎在寬.」(尙書 舜典)

(41) 「此五品不遜, 則禮敎不行. 風俗未淳, 則禮敎不立.」(孔穎達 正義)

이며, 또한 仁은 바로 孝이며, 義는 바로 悌인 것이다. 즉 親親은 仁이고, 敬長은 義이다. 그리고 仁義孝悌는 禮의 核心이자, 倫理의 바탕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古代中國인들이 政治를 敎育과 一致시켰고, 그 敎育의 核心을 人倫禮敎에 두었음을 알았다.

4. 禮敎의 本義와 特性

易經에 다음과 같이 있다. 「天地가 있고 萬物이 있으며; 萬物이 있고 男女가 있고 夫婦가 있으며; 夫婦가 있고 父子가 있으며; 父子가 있고 君臣이 있으며; 君臣이 있고 上下가 있으며; 上下가 있고 보니 禮義가 있게 되었다」⁽⁴²⁾ 이 말은 결국 人間이나 萬物이 天에서 出生했으며, 人間社會의 上下左右의 人倫關係도 天에서 비롯된 것이며, 아울러 그 人倫을 틀잡아 다스리는 禮도 바로 天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禮敎의 뜻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天은 萬物을 生成하고 主宰統攝하는 絶對的 實在이다. 天은 無限的 存在임으로 有限된 人間의 認識으로 全部를 可知할 수는 없다. 그러나 天의 所生인 人間이나 人間社會는 永久無限한 天道·天理·天命·天意에 의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나가게 마련이다. 특히 天은 萬物을 다같이 生成滋育하고 進化發展시키는 本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順天하면 吉福을 받고, 逆天하면 凶禍를 뺄 수 없다. 따라서 人間은 敬天, 承天, 事天, 順天해야 한다. 祭祀로서 天의 啓示와 天理, 天意를 받고 이를 實踐하는 것이 禮이며, 天道를 따르는 것이 敎이며, 또한 上君으로서 下民들에게 天道를 倣效하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것이 敎學이다. 따라서 古代에 있어서는 君長

(42) 「有天地然後有萬物, 有萬物然後有男女, 有男女然後有夫婦, 有夫婦然後有父子, 有父子然後有君臣, 有君臣然後有上下, 有上下然後有禮義有所錯」(周易 序卦 筮十)

은 바로 事天者(司祭者)이며, 또한 師인 것이다. 祭政合一, 政敎合一, 禮敎合一이다. 즉 祭, 禮, 敎, 政은 한줄기 天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天의 所生인 人間의 性도 바로 絶對善인 天性에서 나온 것이다, 人間의 本性은 원래가 天이 明命해 준 바를 따르고 좃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人間을 敎道해야 天道를 좃게 할 敎育의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中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天命을 性이라 하고, 하늘이 사람에게 준 本性을 좃아 가는 것이 道이며, 그 道를 닦아 남들도 좃게끔 넓게 다스리는 것을 敎라 한다.」⁽⁴³⁾ 즉 天이 밝혀 下命해 준 本性을 좃아 仁義禮智信의 道義의 길을 實踐하고, 나아가 남들도 그렇게 倣倣하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禮敎인 것이다.

禮敎는 다름이 아니다. 萬物의 根源이며 生成發展의 主宰者인 天의 絶對 眞理·絶對善을 本性으로 좃아 행하고, 또한 남들도 天道를 따르고 행하게끔 敎導하는 것이다.

現代的 用語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全世界의 人類로 하여금 하나의 眞理, 絶對善을 따르고 좃고 행하게 敎導하는 것이다」 과연 오늘의 人類의 理想도 그렇다. 하나의 世界, 善의 世界, 發展하는 世界를 理想으로 여기고 있다. 以上에서 본 바 東洋的 禮敎의 참 뜻은 절대로 낡거나 좁은 것은 아니다. 다음에서 그 特性을 추려 보겠다.

禮敎의 特性은 앞에서 밝힌 바 本義에서 끌어 낼 수 있는 것이며, 細分하면 꽤 多端하다. 여기서는 두드러진 特性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추리겠다. 즉 天人合一, 政敎合一, 德行合一이다.

㉔ 天人合一: 사람은 天의 所生이며, 사람의 本性은 天命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人心은 바로 天心에서 나온 것이며, 人道는 天道이며, 人倫은 天理이다. 朱子는 中庸註에서 말했다. 「사람의 사람된 연유나, 道의 道다운 연유나, 聖人이 남을 가르킬 수 있는 연유가 다 하늘에 根本

(43)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中庸)

을 두었기 때문이요, 또한 하늘의 根本을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즉 天의 所生인 人道, 人倫은 天道, 天倫과 一統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人間이나 人間社會의 倫理道德이나, 人間의 性情, 精神 등 모두가 하늘에 歸一될 수 있다는 것이다. 天은 絶對善이며 唯一無二의 存在다. 이 때의 우리 人類는 하나의 世界, 하나의 理念, 하나의 眞理이며 絶對最高善에 集中될 수 있는 것이다. 이 天人合一의 思想은 바로 東洋倫理傳統으로서의 禮敎의 特性 중에서도 가장 重要하며, 또한 全人類를 위해서도 貴重한 思想이라 하겠다. 이는 바로 世界人類를 위한 一統의 思想이라고도 하겠다.

天人合一의 思想은 일찍이 周易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 되었다. 「乾은 元亨利貞이다」⁽⁴⁵⁾ 疏에도 있듯이 乾卦는 天을 象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天이라 하지 않고 乾이라 한 것은 天이란 定體의 運用을 일컫기 위해서다」⁽⁴⁶⁾ 또한 乾은 健이며, 天의 用이다. 天의 運用은 끝이 없고 쉬지 않는다. 따라서 健이라고 한다. 이러한 天의 運用을 사람들로 하여금 본뜨게 하기 위하여 天이라 하지 않고 乾이라 했다. 그러나 乾의 本體는 어디까지나 天이다. 萬物之始祖이며 主宰者이며 尊位에 있다. 따라서 卦首에 乾을 논하는 것이다.

이렇듯 天의 運用을 일컫는 것이 乾이다. 그리고 乾을 다시 元亨利貞으로 풀이하고 있다. 疏에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元亨利貞은 乾의 四德이다. 子夏傳에는 元은 始고, 亨은 通이고, 利는 和고, 貞은 正이라 했다」⁽⁴⁷⁾ 元亨利貞의 四德의 뜻을 좀더 자세히 풀면 다음과 같

(44) 「人之所以爲人，道之所以爲道，聖人之所以爲教，無一不本於天而備於我。」(朱子 中庸集註)

(45) 「乾，元亨利貞。」(周易：乾傳，第一)

(46) 「此既象天，何不謂之天，而謂之乾者。天者，定體之名；乾者，體用之稱。」(周易 乾卦 疏)

(47) 「元亨利貞者，是乾之四德也。子夏傳云：元始也，亨通也，利和也，貞正也。」(周易：乾卦疏)

다. 元이 始라고 한 뜻은 다름이 아니라 自然萬物이 陽氣를 타고 비로서 生成하기 때문이다. 즉 季節로는 春이며, 이는 萬物之始요 바로 元始다. 聖人들은 이를 본 받아 善道를 行하여 萬物을 生存케 한다. 따라서 仁이라 하겠다. 亨을 通이라 했다. 自然萬物이 充分히 長成하여 和諧하고 있는 夏의 表象이다. 즉 훌륭한 것들이 서로 어울려 있으면서 서로가 開通하고 있다. 따라서 亨通이라 하디, 이렇듯 嘉會하고 있는 품은 바로 禮라 하겠다. 이렇듯 萬物이 嘉會 亨通하니깐 제마다의 義를 가지고 協和하며 또한 理를 따라 利로움게 한다. 季節로는 秋의 氣象이며 遂라 하겠고, 德目으로는 義之和라 하겠다. 앞서 본듯이 萬物이 태어나, 자라서 잘 어울리고 나아가서는 義와 理를 따라 利를 이룩하고 난 다음 모든 事物은 바르고 굳게 마련이다. 이는 眞正이며, 季節로는 冬의 氣象이며, 바르게 일을 成就하는 뜻에서 德目으로는 智라 하겠다. 文言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君子는 仁을 體得實踐하여 남을 잘되게 하고, 嘉美하게 集合하고 會同함으로써 禮에 맞게 하고, 萬物을 올바르게 利用함으로써 義에 맞게 하고, 바르고 굳게 지키므로써 모든 일을 成事시켜야 한다」 따라서 文言에는 바로 앞에서 「元은 善之長이며, 亨은 嘉之會며, 利는 義之和며, 貞은 事之幹이라」⁽⁴⁸⁾ 했다. 君子는 다름이 아니다. 元亨利貞이란 四德을 實踐하는 사람이다. 이는 바로 乾, 즉 天의 運行을 그대로 좇고 따른 것이다. 文言에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大人은 天地와 더불어 德을 맞추고, 日月과 더불어 明을 맞추고, 四時와 더불어 序를 맞추고, 鬼神과 더불어 吉凶을 맞춘다」⁽⁴⁹⁾

結局 四德을 實踐하는 君子나 大人은 天의 運用인 乾을 實踐함으로써

(48) 「文言曰：元者善之長也；亨者嘉之會也；利者義之和也；貞者事之幹也。君子體仁足以長人；嘉會足以合禮；利物足以和義；貞固足以幹事。君子行此四德者，故曰：乾元亨利貞。」(周易 乾傳 第一)

(49) 「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與日月合其明；與四時合其序；與鬼神合其吉凶。」(周易 乾傳，第一)

天의 歸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때, 仁義禮智 같은 道德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天理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孟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性情을 좇아 행동하면 善을 이룩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惻隱하게 여기는 마음,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恭敬하는 마음, 是非를 가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惻隱하게 여기는 마음은 仁이며,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義며, 恭敬하는 마음은 禮며, 是非를 가리는 마음은 智다. 따라서 仁義禮智는 결코 밖에서 내 속에 들어와 짓든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⁵⁰⁾

天人合一의 禮敎思想은 모든 사람을 天地萬物의 本인 天에 歸一시키고 天命을 따르므로 一統된 世界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⑥ 政敎合一: 南西를 막론하고 古來로 民衆을 대표하고 그들을 領導하는 사람은 智慧나 能力이 特出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즉 古代에 있어 君王은 民衆을 敎化하고 指導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러자 人類社會에는 점차로 權力과 強壓으로 남을 누르는 것을 가지고 다스림으로 여기는 잘못에 물들게 되었다. 그러나 古今東西를 통하여 人類의 思想은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끌고 가는 政治보다는 德으로 깨우쳐주고 스스로 좇는 政治를 내걸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政治와 敎化를 同一視한 政敎合一의 禮敎精神은 人類의 理想을 具現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古代 中國에서 傳說的인 聖君이라 알려진 燧人, 庖犧, 神農, 黃帝 등이 다 火食이나 漁獵, 農耕, 牧畜, 建築 등 生活技術을 直接的으로 百姓들에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人間社會가 秩序와 平和를

(50) 「孟子曰：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惻隱之心，人皆有之。羞惡之心，人皆有之。恭敬之心，人皆有之，是非之心，人皆有之。惻隱之心，仁也。羞惡之心，義也。恭敬之心，禮也。是非之心，智也。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我固有之也。」(告子上)

유지하기 위해서는 生活技術外로 이론마 倫理를 깨우쳐 주어야 했다. 여기서 后稷은 백성들에게 稼穡을 깨우쳐 주는 동시에 契를 司徒로 하여 五敎를 펴게 했다. 이렇게 하여 古來로 君師合一, 官師合一, 政敎合一이 重要視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때의 政敎의 中心은 禮敎였다. 孔子는 政治는 禮를 앞세워야 한다. 禮는 政治의 기본이다」⁽⁵¹⁾라 했고 荀子는 「禮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일도 되지 않고, 나라도 편하지 못하다」⁽⁵²⁾라 했다. 결국 政敎合一은 禮敎의 뜻이다.

禮敎로서 國民을 敎化시키면, 刑罰을 쓰지 않고 國家社會는 安樂해질 수 있는 것이다. 漢의 董仲舒는 말했다. 「敎化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성들이 바르지 못하다. 옛날의 聖王은 누구나 다 敎化를 앞세웠으며, 나라에는 太學을 세워 가르쳤으며, 邑에는 庠序를 깨우쳤으며, 仁義禮로서 백성들을 敎化節度했다. 따라서 아주 가벼운 刑罰만으로써도 犯罪者를 禁할 수 있었으며 온 백성들이 잘 敎化되어 習俗이 優美했다」⁽⁵³⁾

政敎合一의 理想을 大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學의 道는 하늘이 내린 밝은 德을 밝혀내고, 백성을 敎化改新하여 至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大學之道는 바로 治人之道이기도 하다. 이러한 政敎合一의 精神은 個人的인 面에서 볼 때 나셔서 現實參與로 직접 하는 경우와 물러나 敎育이나 立言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한다. 孔子나 孟子가 그러했다. 즉 窮하고 맥히면 獨善其身하고 天下英才들을 敎育하고, 達해야 트이면 兼善天下하여 政敎를 推行하는 것이다.

政敎合一의 特性에서 強調해 둘 점은 위에 있는 君三과 官師가 率先

(51) 「爲政先禮, 禮者政之本與.」(左傳 哀公問)

(52) 「人無禮則不生, 事無禮則不成, 國家無禮則不寧.」(荀子)

(53) 「敎化不立, 而萬民不正也. 古之王者, 莫不以敎化爲先務, 立太學以敎於國, 設庠序以化於邑, 漸民以仁, 摩民以誼, 節民以禮, 故其刑罰甚輕而禁不犯者, 敎化行而習俗美也.」(賢良策對)

(54)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大學)

하야 바르고 垂範해야 한다. 大戴禮 王言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윗 사람은 백성의 表範이다. 表範이 바르면, 그 두엇이 바르지 않겠는가?」⁽⁵⁵⁾ 孔子도 말했다. 「政治는 바로잡는 것이다. 그대가 출선하야 바르게 이끌어가면, 그 누가 바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⁵⁶⁾

德行合一: 바로 앞에서 본 政教合一은 결국 참다운 正, 眞理를 國民들에게 깨우쳐 줌으로써 스스로 올바르게 다스려지게 하자는 것이다. 즉 國家的인 政治란 行動과 國民의 眞理覺醒이란 知覺을 一致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國家와 國民間의 德行合一이라 하겠다. 德行合一이란 다름이 아니다. 天道에서 연유된 人道를 本體로 하고, 그 道의 用인 모든 德을 認識하고 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를 實踐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國家의 경우, 君과 民이 다같이 天命, 天理, 天道를 깨닫고 이를 政治로서 實踐하는 것은 國家的 德行合一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를 政教合一이라 따로 불렀다. 이에 비해 個人에게 있어 여러 德目을 實踐하는 것을 여기서 德行合一이라 하겠다. 德目과 이에 實踐에 대한 풀이는 禮敎의 德目에서 詳論하겠다.

(55) 「上者民之表也, 表正則何物不正?」(大戴禮 王言)

(56)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論語)